



어린 날, 엄마 없는 날의 풍경

어린 시절 목청껏 부르곤 하던 <고향의 봄>을 지금도 가끔 흥얼흥얼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샌가 목청껏 따라 부르곤 해서 합창으로 끝을 맺곤하지요. 가만 가만 가사를 생각하면 복숭아꽃과 살구꽃 또 아기 진달래로 아름답게 물들었던 흙내음이 물씬 풍기는 어린 시절 나의 고향언덕에서 있는 듯한 가슴 훈훈함을 느끼곤 합니다. 엄마 없는 날을 쓰신 이원수 선생님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동요 <고향의 봄>을 쓰셨으며 평생을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에 바치셨습니다.

《엄마 없는 날》은 이원수 선생님의 단편동화집입니다. 이 책에는 <엄마 없는 날> 외에 <도깨비 마을> <해바라기> 등 열 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친근하고 정다운 우리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끼도록 해줍니다. 주인공들이 말해주듯이 무섭기는커녕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도깨비며 해바라기, 어린 송아지가 태어나던 날의 설레임, 나무에도 혼이 깃들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며 집에서 야단맞을까 무서워서 도망쳤던 뒷산의 기억과 우산이 귀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도 어느 것을 읽어도 우리의 모습들이 녹아 있는 듯합니다.

특히 <엄마 없는 날>을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영이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몰래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엄마가 외갓집에 다니러 가신 날, 영이는 혼자서 유치원엘 갑니다. 과란 신호등일 때 큰길도 잘 건너고 누렁이가 있는 집 앞도 잘 지나갔습니다. 집을 들어서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영이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엄마는 언제 오시나요?

달을 보면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달은 엄마 얼굴이 되어 웃음 띤 얼굴로 “영아, 저녁 먹었니?” 합니다.

엄마가 없는 날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영이의 하루에 동참하면서 일상 속에 엄마의 자리를 느낄 수 있고 그 빈자리의 소중함을 체험합니다.

《엄마 없는 날》이 이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글이 지극히 어린이다운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어느 날의 풍경이 보이는 듯합니다. 영이가 무서워하던 누렁이를 만났을 때 콩당콩당 하던 작은 가슴도 엄마가 없는 집을 들어설 때 “엄마”하고 부르는 모습도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른의 기준과 방식에 맞춰 억지 감동을 자아내는 책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무런 가식과 덧셈도 없이 그려집니다.

어른이 된 후 정확히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다시 접하게 되면서 서점의 아동문학 코너의 많은 작품들에 놀라고 그 거대한 바다와 같은 시장에서 길을 헤메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 이 한 권의 책은 나에게 길을 잃고 헤메이던 바다에서 만난 섬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화를 읽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안에 또 다른 고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의 동화들을 볼 때면 항상 아련한 향수와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고픈니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안의 고향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명은 주부